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량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s : Focusing on the Diversity and Amount of the Programs in Use

정선영(Jung, Sun Young)¹, 송미령(Song, Mi Ryung)², 조유리(Cho, Yu Ri)²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²Dream Start Support Cente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s, considering its emphasis on the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For this, it compared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s in terms of the number of types and the total amount of time between children who had been participating in Dream Start and those who had no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all other conditions were held constant, children in Dream Start used more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compared to their correspondents. Second, children in Dream Start were more likely to use two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over weekdays or three types of programs for several days a week compared to their correspondents. Third, children in Dream Start spent less amount of time in the after-school programs compared to their correspondents. Even though this study found the effectiveness of Dream Start as a facilitator of community resource utilization,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use in terms of its diversity and amount on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드림스타트(Dream Start), 방과후 서비스(after-school program)

I. 서론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사고 및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E. Kwon, & I. Ku, 2010) 영아기에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으며(R.A. Thompson, 2006) 학령기에는 비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정수준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 Park, 2008). 또한, 저소득층 아동은 인지발달과 학업성적에서 비저소득층 아동과 격차를 보이며(K. Kim, 2006; S. Phipps, 2007)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높고(B. Ferguson, K. Tilleczeck, K. Boydell, A. Rummens, & E. D. Roth, 2005)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Fass, K. Dinan, & Y. Aratani, 2009).

* 본 논문은 2014년도 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ong, Mi Ryung, Researcher,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Chungparo 345 Yongsan-gu Seoul, 140-710, Tel: +82-2-6901-0294, E-mail: sted@kcpi.or.kr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발달상의 보완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중재(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2014년 현재 17,500여개 센터)이 실시되고 있으며(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4),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2014년 현재 3,000여개 센터)이 진행되고 있다(4Children, 2014).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2000년대 초반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아동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에 학교를 통합 서비스망의 중심축으로 하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이후 전국으로 확장되었으며 2004년에는 지역사회가 복지·교육·보건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위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2007년 중앙정부는 위스타트를 모델삼아 희망스타트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바꾼 매년 약 30개소의 센터가 설립되어 2013년에는 211개소에 이르는 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에 대한 통합적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드림스타트의 효과성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사회·정서 발달과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Y. Chun, S. Lee., H. Kim., & E. Chang, 2012). 긍정적인 변화는 학령기 아동보다는 영유아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지역별 특성(예: 농산어촌, 대도시 자치구)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Y. Chun et al., 2012).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참여가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데, 이는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조건이 충족되는 저소득가구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과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고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

이들끼리 지내는 초등학생은 97만 명이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거의 매일 방과 후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아동·청소년(6세-18세)도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이들 중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은 약 40%, 맞벌이가구 아동의 자기보호는 약 38%, 한부모가구 아동의 자기보호는 약 34%인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저소득·맞벌이·한부모가구의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적·사적서비스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교과 학원, 예체능 학원, 복지관 방과후 교실 등이 있다. 자기보호 아동의 보호자 중 약 40%가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비용 부족, 맡길 곳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는 점을 자기보호의 이유로 꼽았는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드림스타트 이용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서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비용 부족으로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가구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드림스타트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드림스타트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기능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방과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각 방과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서비스로 저소득가구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교과 학원의 경우 아동의 학업을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아동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방과후 서비스의 다양성 이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던 방과후 서비스 이용의 측면은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량으로,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는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이 가정에 혼자 혹은 아동끼리 방치되는 공백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의 양에 차이가 있는가?
- 2)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사회서비스 연계를 강조하는 드림스타트의 특성이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드림스타트를 비롯하여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와 같은 초기 중재 프로그램의 사회서비스 연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각 방과후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드림스타트에서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대는 초등학교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사회서비스 연계

복지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단위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시도로 2004년도에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2012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분절적 자원에서 벗어나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른 아동대상 서비스와 구별되는 점은 아동 및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데 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형성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연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 임신부와 0-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얼리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와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각 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특수교육 조정자(special needs coordinator), 건강 조정자(health coordinator), 부모 참여 조정자(parent involvement coordinator), 사회 서비스 조정자(social service coordinator)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가족 서비스 워커(family service worke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일반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족 서비스 워커는 각 아동과 가족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사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I. Chung, K. Nam, & Y. Chun, 2009).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실행 기준(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9)은 가족과 센터의 연계 및 지역사회와 센터의 연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가령, 센터는 가족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의 중복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 가족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기준은 헤드스타트 센터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아동과 그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기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초기 중재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로 1) 3, 4세 아동 대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무료 보육과 2) 지역사회 보육정보, 3) 양육에 대한 정보 및 부모지원과 교육에 대한 정보, 4) 산전, 산후관리 및 아동 건강 정보, 5) 부모의 취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6) 아동출산 및 초등학교 입학시 필요한 서비스(예: 방과후 서비스)의 안내 등을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아웃리치와 가정방문을 통해 슈어스타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슈어스타트 센터의 아웃리치 워커(outreach worker)와 가족 지원 워커(family support worker)는 전담하는 가족을 정해 아웃리치와 가정방문을 진행하며 각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I. Chung et al., 2009).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른 사회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강조되는데, 슈어스타트는 협력의 중심역할을 하며 각 연계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 연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평균적으로 사업 지역마다 2~3개의 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지역에서 주로 300명 이내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만들어 공무원 3인과 민간수행 인력 3인을 고용하여 사업지역마다 총 6인 정도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양육 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정결과는 '위기도 수준(고/중/저)'으로 요약되어 사례회의와 재사정 주기를 결정지으며 사정에서 밝혀진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도 수준과 관련 없이 모든 아동에게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드림스타트의 사회서비스 연계는 해당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를 크게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나누고 지역별로 서비스의 연계비율을 지정함으로써 개별 센터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별 센터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유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2. 저소득가구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저소득가구의 초등학생 아동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적·사적 방과후 서비스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방과후 교실, 교과 학원, 예체능 학원 등이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에 도입되어 2014년 현재 약 10,700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시 전 학년에서 실시되며 부모 귀가 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이 오후돌봄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약 1,700개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및 기타 지원대상자(한부모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등)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중 개별 학교가 정한 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식비·교재비·교구비 등에 대하여 수의자부담 원칙을 따르며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돌봄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돌봄프로그램에는 청결지도, 안전교육, 놀이활동, 미술치료 등이, 교육프로그램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기초학습(국어, 수학, 영어, 과학), 창의력학습, 독서 등이 포함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실질적 돌봄과 교육

Table 1. Service composition of Dream Start based on location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Local district the metropolitan city (e.g., Joong-gu)	Big city (e.g., Suwon)	Small city (e.g., Donghae)	Rural area (e.g., Goesan)
Basic Service	Type	Home visit, Case management			
	Portion of direct service	100%			
Mandatory Service	Type	Medical examination, Meantlh health services, Pre- and post-natal services, Guidance for basic learning, Parent education, Services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ortion of direct service	up to 15%	up to 20%	up to 30%	up to 40%
Elective Service	Type	Health services, Support for medical treatment, Guidance for learning, Parenting support, Cultural activities			
	Portion of direct service	100% mix of direct and indirect services			

기능의 수행을 위해 돌봄강사 1명당 20명 내외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돌봄교실서비스를 원하는 1, 2학년에게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인원의 증가와 돌봄강사의 자격기준 미비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도 하며, 초등돌봄교실이나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모두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현재까지는 운영방안(Y. Lee, 2013; Y. Cho, 2014)이나 취업도의 만족도(S. Rho, 2012) 등에 제한되어 있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미이용 집단과 비교하거나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말부터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도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2012년 현재 약 4,0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0만 5천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규모를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로 한정되었을 때 전체 저소득가구 아동의 약 38%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가능하다(H. Kang et al., 2012). 2013년 12월 현재 일반가구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는데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4b).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상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크게 1) 보호, 2) 교육, 3) 문화, 4) 정서지원, 5)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영역에는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생활안전지도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교육 영역에는 학습, 특기적성, 인성·사회성 교육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문화 영역에는 공연, 견학, 캠프 등의 체험활동과 참여활동이, 정서지원 영역에는 상담과 가족지원 등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는 자원봉사활동, 후원과 관리, 복지단체 연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다(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s, 2014a).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초등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센터의 운영(예: T. Park, H. Park, & H. Lee, 2010)이나 종사자의 역량(예: S. Han, H. Kim, & J.

Huh, 2007)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미이용 집단과 비교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는 연구는 미비하다. H. Lee and H. Shin(2008)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효과를 미이용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된 변인이 성별, 연령, 가족유형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아동을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만큼 낙후한 지역에서 표집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반영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는 교과 학원과 예체능 학원이 포함된 '사교육'일 것이다.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는 개인이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사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중학생에 비해 약 3만 5천원 낮았다(Statistics Korea, 2014).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1.8%로 중학생(69.5%)이나 고등학생(49.2%)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57.5%로 가장 낮았는데, 지역사회의 사교육시장 형성과 이용여건 등이 사교육 참여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참여율은 31.3%로 700만원 이상 집단의 참여율인 83.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조사에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사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방과후 활동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도에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드림스타트가 설립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신규 드림스타트 센터의 경우, 아직 드림스타트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 및 문제 사정 과정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참여'아동으로, 신규 드림스타트 지역의 아동은 '미참여'아동으로 명명하였다. 총 165개 센터(기존 센터 130개소, 신규센터 3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센터는 연령(0세~12세)과 위기도 수준(고/중/저)에 따라 할당된 30~40명의 아동 및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전체 자료 중 초등학생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3,42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드림스타트/미참여'아동은 600명이고 '참여'아동은 2,820명으로 집단 간 규모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1) 드림스타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극소수이고 2) '참여'아동 중에서 600명 정도의 아동을 2차적으로 표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고려하여 3,420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가구는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정보제공동의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예: 가구 소득, 아동 발달 수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참여가구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

2. 연구변인

1) 종속변인

(1)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는 1) 지역아동센터(community child center), 2) 초등돌봄교실(care center at elementary school), 3) 복지관 방과후교실(after-school program at welfare center), 4) 교과 학원(private curricular program), 5) 예체능 학원(private non-curricular program)이다. 각각의 방과후 서비스에

대해 참여하고 있으면 1,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의 개수는 각각의 값(1/0)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시간의 응답율은 저조한 편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776명 중에서 71.3%에 해당하는 553명만이 유효한 응답시간을 기재하였다. 이용시간의 분 정보를 이용할 경우 결측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시간의 시정보만 이용하여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주당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주당 이용시간은 주당 이용횟수와 한번 이용할 때의 평균시간을 곱하였고,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주당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총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일주일에 평균 13.98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횟수

주당 이용시간에 비해 결측치가 적은 주당 이용일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량을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주당 이용일수는 각 방과후 서비스에 일주일에 노출되는 횟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Table 2>의 기술통계는 각 방과후 서비스 이용일은 평균 3~5일로, 방과후 서비스 이용일의 총합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거나 한 가지 서비스를 5일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공백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당 이용시간에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에 이용하는 서비스의 시간에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의 1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주당 이용횟수를 합산하여 총 이용횟수를 산출하였다.

Table 2. Response rates on the use of each after-school program and descriptive analysis result

	Use		Number of use per week (= number of days of use/wk)		Number of hours per week (=number of use/wk X hours per use)	
	Response (count)	(%)	Response (count)	mean(S.D.)	Response (count)	mean(S.D.)
Community child center	776	22.69	606	4.36 (1.52)	553	13.98 (9.05)
Care center at elementary school	938	27.43	713	3.97 (1.49)	602	9.87 (8.50)
After-school program at welfare center	515	15.06	395	3.30 (1.68)	336	7.92 (7.68)
Private curricular program	681	19.91	605	4.66 (0.94)	536	8.32 (6.17)
Private noncurricular program	999	29.21	908	4.71 (0.92)	812	6.14 (4.85)

2) 독립변인: 드림스타트 참여여부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에게는 0, 미참여 아동에게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3)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가구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취업 여부 등과 같은 특성 외에 아동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이용하였다. 아동의 특성으로 성별(남아=1)과 연령을, 가구의 특성으로 주양육자 취업(=1), 가족구조(양부모/한부모/기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수급여부, 자녀의 수를 측정하였다. 드림스타트 센터의 특성으로 지역유형을 고려하였는데, 지역유형은 크게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유형을 고려한 것은, 지역에 따라 이용가능한 방과후 서비스 자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은 드림스타트 참여 가구는 미참여 가구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으며(chi-square(2)=7.92, p < .05) 자녀의 수는 적고(F=10.23, p < .01) 대도시 기초단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산어촌에 위치하는 경우는 적음을 보여준다(chi-square(3)=65.59, p < .001). 그러나 아동의 성별, 연령, 주양육자의 취업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분석방법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둘째,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가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셋째,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으면서 다수의 변곡점이 분포하는 방과후 서비스 주당 이용시간과 주당 이용횟수를 범주화하였으며(<Table 6>과 <Table 9>참고), 각 범주 간에 연속성이 존재하지만 각 범주간의 차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형로지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과 다항로지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모두 실시하였다. 두 가지 분석방법 중에서 모형의 유의도가 높은 모형을 본 연구결과에서 소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13.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드림스타트 참여가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에 미치는 영향

Table 3.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the statu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n=3,420)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chi-square or F
	count(%) or mean(S.D.)	count(%) or mean(S.D.)	count(%) or mean(S.D.)	count(%) or mean(S.D.)	
Gender of the child: Male	1,353 (47.98)	299 (49.83)			0.68
Female	1,467 (52.02)	301 (50.17)			
Age of the child	9.29 (1.64)	9.21 (1.53)			1.45
Employment status of main caregiver: Not working	1,468 (52.06)	338 (56.33)			3.63
Working	1,352 (47.94)	262 (43.67)			
Family structure: Intact	1,073 (38.05)	256 (42.67)			7.92*
Single parent	1,170 (41.49)	212 (35.33)			
Other	577 (20.46)	132 (22.00)			
NBLSS: Not receiving	1,367 (48.48)	295 (49.17)			0.09
Receiving	1,453 (51.52)	305 (50.83)			
Number of children	2.19 (1.11)	2.35 (0.99)			10.23**
Location: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869 (30.82)	156 (26.00)			65.49***
Big-sized cities	260 (9.22)	27 (4.5)			
Middle- and small-sized cities	863 (30.60)	143 (23.83)			
Rural areas	828 (29.36)	274 (45.67)			

* p < .05; ** p < .01; *** p < .001

드림스타트 참여여부가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와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살펴보았다 (<Table 4> 참고). 지역아동센터와 예체능학원의 경우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와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일부 방과후 서비스에서는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다(chi-square(1)=11.35, $p < .01$). 그러나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복지관 방과후교실(chi-square(1)=4.76, $p < .05$)이나 교과학원(chi-square(1)=20.76, $p < .001$)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참여여부가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OLS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미

참여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개수는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에 비해 0.1개($p < .05$) 적었다.

2.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총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참여여부가 방과후 서비스 총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당 총 이용시간과 주당 총 이용횟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3,420명의 원래 분석대상 중

Table 4. Use of each after-school program by the statu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n=3,420)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chi-square
Community child center: Not using	2,169(76.91)	475(79.17)	1.43
Using	651(23.09)	125(20.83)	
Care center at elementary school: Not using	2,080(73.76)	402(67.00)	11.35**
Using	740(26.24)	198(33.00)	
After-school program at welfare center: Not using	2,378(84.33)	527(87.83)	4.76*
Using	442(15.67)	73(12.17)	
Private curricular program: Not using	2,218(78.65)	521(86.83)	20.76***
Using	602(21.35)	79(13.17)	
Private noncurricular program: Not using	1,987(70.46)	434(72.33)	0.84
Using	833(29.54)	166(27.6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number of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in use

	Number of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in use B(S.E.)
Non-participants	-0.10(0.04)*
Male child	-0.04(0.03)
Age of the child	-0.07(0.01)***
Working main caregiver	0.10(0.03)**
Intact family	-0.10(0.04)**
Single-parent family	-0.10(0.04)*
Receiving NBLSS	-0.003(0.03)
Number of children	-0.01(0.01)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0.14(0.06)*
Middle- and small-sized cities	-0.16(0.04)***
Rural areas	-0.05(0.04)
Constant	1.96(0.10)***
n	3,420
Significance of the model	F(11, 3408)=9.06***
R-square	0.03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Other family structure, Big-sized cities

Table 6. Category of the total number of hours of after-school program use per week

Total number of hours of after-school program use per week	count	%
Less than 5 hours	780	37.02
Over 5 hours - Less than 15 hours	778	36.92
Over 15 hours	549	26.06
Total	2,107	100.00

Table 7.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total number of hours of after-school program use per week

	Less than 5 hours (vs. Over 5 hours - Less than 15 hours)	Over 15 hours (vs. Over 5 hours - Less than 15 hours)
	B(S.E.)	B(S.E.)
Non-participants	0.16(0.14)	0.36(0.15)*
Male child	0.03(0.10)	-0.08(0.11)
Age of the child	-0.01(0.03)	-0.19(0.04)***
Working main caregiver	-0.22(0.10)*	0.01(0.12)
Intact family	0.12(0.14)	0.07(0.16)
Single-parent family	0.23(0.14)	0.25(0.16)
Receiving NBLSS	-0.07(0.11)	0.08(0.12)
Number of children	0.06(0.05)	0.06(0.06)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0.25(0.21)	0.37(0.21)
Middle- and small-sized cities	0.24(0.13)	-0.09(0.15)
Rural areas	0.08(0.13)	-0.20(0.15)
Constant	-0.22(0.35)	1.12(0.39)**
n	2,107	
Significance of the model	LR chi-square(22)=68.88***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Other family structure, Big-sized cities

에서 방과후 서비스를 한 가지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시간에 결측치가 있는 아동을 제외한 후, 2,1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당 총 이용시간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변곡점이 존재하므로, 변곡점을 중심으로 집단 간 균형을 맞추어 <Table 6>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개수와 주당 총 이용시간 간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Table 7> 참고)과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 및 개별 서비스 이용여부를 통제한 분석(<Table 8> 참고)을 실시하였다. <Table 7>의 결과는 현재 드림스타트 미참여 아동이 참여 아동에 비해 총 15시간 이하에 비해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상대적위험확률(relative risk ratio[RRR])이 1.43배(=exp(0.36)) 높음을 보여준다. 즉,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은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이 15시간 이하일 확률이 높았다.

<Table 8>의 분석결과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나 개별 서비스 이용여부가 동일할 때, 드림스타트 미참여 아동이 참여 아동에 비해 총 15시간 이하 이용에 비해 총

15시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상대적위험확률이 각각 1.52배(=exp(0.42)), 1.54배(=exp(0.43)) 높음을 보여준다.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의 총합이나 개별 서비스 이용여부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을 때,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성이 더욱 크게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듯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을수록 총 15시간 이하보다는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B=0.32, $p < .001$), 이용시간이 가장 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수록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B=1.14, $p < .001$). 그러나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복지관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56, $p < .001$).

2)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

개별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를 합산하였을 때 정상분포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변곡점이 존재

Table 8.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total number of hours of after-school program use per week: Controlling the number of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in use and the use of each after-school program

	Controlling the number of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in use		Controlling the use of each after-school program	
	Less than 5 hours (vs. Less than 15 hours)	Over 15 hours (vs. Less than 15 hours)	Less than 5 hours (vs. Less than 15 hours)	Over 15 hours (vs. Less than 15 hours)
	B(S.E.)	B(S.E.)	B(S.E.)	B(S.E.)
Non-participants	0.08(0.14)	0.42(0.15)**	0.09(0.14)	0.43(0.15)**
Number of types in use	-0.84(0.09)***	0.32(0.08)***	-	-
Use of community child center	-	-	-1.82(0.16)***	1.14(0.14)***
Use of care center at elementary school	-	-	-1.20(0.14)***	0.20(0.13)
Use of after-school program at welfare center	-	-	-0.93(0.16)***	0.56(0.15)***
Use of private curricular program	-	-	-1.10(0.14)***	-0.24(0.15)
Use of private noncurricular program	-	-	-0.19(0.12)	0.07(0.13)
Male child	0.01(0.10)	-0.06(0.11)	0.01(0.11)	-0.02(0.12)
Age of the child	-0.02(0.03)	-0.19(0.04)***	0.02(0.03)	-0.21(0.04)***
Working main caregiver	-0.20(0.11)	0.00(0.12)	-0.25(0.11)*	0.15(0.12)
Intact family	0.08(0.14)	0.09(0.16)	0.06(0.15)	0.10(0.16)
Single-parent family	0.19(0.14)	0.27(0.16)	0.20(0.15)	0.21(0.16)
Receiving NBLSS	-0.05(0.11)	0.07(0.12)	-0.05(0.11)	0.05(0.12)
Number of children	0.05(0.05)	0.07(0.06)	0.07(0.06)	0.02(0.06)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0.20(0.21)	0.39(0.21)	0.30(0.22)	0.32(0.22)
Middle- and small-sized cities	0.17(0.14)	-0.07(0.15)	0.24(0.14)	-0.08(0.15)
Rural areas	0.03(0.13)	-0.17(0.15)	0.12(0.14)	-0.22(0.15)
Constant	1.18(0.39)**	0.48(0.42)	0.86(0.41)*	0.64(0.44)
n	2,107		2,107	
Significance of the model	LR chi-square(24)=243.04***		LR chi-square(32)=537.00***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Other family structure, Big-sized cities

Table 9. Category of the number of use of after-school programs per week

Number of use of after-school program per week	count	%
Once to four times	392	16.88
Five times	1,130	48.66
Six times to nine times	369	15.89
More than ten times	431	18.56
Total	2,322	100.00

하므로, 번곡점을 중심으로 주당 이용횟수를 <Table 9>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 5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서비스를 5일 동안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서비스를 4회+1회의 형태로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6회~9회의 경우는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하루에 이용하는 경우가 일주일 중 며칠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며, 10회 이상은 2가지 서비스를 하루에 이용하는 경우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거나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별 주당 이용횟수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즉, 서비스 주당 이용횟수는 서비스 종류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므로),

서비스 종류의 개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주당 총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Table 10> 참고). 여러 범주 중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5회 이용'과 '10회 이상 이용'의 비교였는데, 드림스타트 미참여 아동은 참여 아동에 비해 5회 이용에 비해 10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대적위험확률이 36%(=1-exp(-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1가지 서비스를 5일 동안 이용하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5회 이용에 비해 2가지 서비스를 5일 이용하거나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며칠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0회 이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Table 10. The effects of Dream Start participation on the total number of use of after-school program per week

	Once to four times (vs. five times)	Six times to nine times (vs. five times)	More than ten times (vs. five times)
	B(S.E.)	B(S.E.)	B(S.E.)
Non-participants	-0.13(0.16)	-0.29(0.16)	-0.45(0.16)**
Male child	-0.03(0.12)	-0.17(0.12)	-0.10(0.11)
Age of the child	0.13(0.04)**	0.02(0.04)	-0.06(0.04)
Working main caregiver	-0.18(0.12)	-0.06(0.12)	0.17(0.12)
Intact family	0.08(0.17)	-0.07(0.17)	-0.08(0.16)
Single-parent family	0.11(0.17)	-0.05(0.17)	-0.15(0.16)
Receiving NBLSS	-0.19(0.12)	-0.15(0.12)	0.11(0.12)
Number of children	0.03(0.06)	0.06(0.06)	-0.06(0.06)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0.18(0.23)	0.04(0.23)	-0.11(0.23)
Middle- and small-sized cities	0.05(0.15)	-0.27(0.16)	-0.23(0.15)
Rural areas	-0.36(0.16)*	-0.37(0.16)*	-0.14(0.14)
Constant	-2.11(0.42)***	-0.98(0.41)*	-0.05(0.39)
n	2,322		
Significance of the model	LR chi-square(33)=63.56**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Other family structure, Big-sized cities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참여가 저소득가구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과 드림스타트 실시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 종류의 개수와 총 이용량을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평균 0.1개 더 많은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보다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강조하는 드림스타트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별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비교한 결과 (<Table 4> 참고)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한 데에는 교과학원의 이용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의 학원연합 및 개별 학원과 연계하여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자적인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하로, 이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700만원 이상 집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Statistics Korea, 2014. 2. 27.). 사교육의 효과나 방과후 서비스 효과의 비교분석(예: 지역아동센터 vs. 교과학원)을 차치하고서라도, 저소득가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서비스(예: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복지관 방과후 교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드림스타트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 서비스 연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적인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과 학원의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관점(예: 자기보호, 학업성취, 양육스트레스)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서비스의 주당 총 이용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드림스타트 참여아동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2가지 서비스를 5일 동안 이용하거나,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며칠에 걸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가 더 많다는 위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가구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방과후 서비스가 아닌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E. Sung et al.(2012)의 연구는 참여하는 청소년활동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청소년들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수준은 높은 반면에 주의산만과 사회적 위축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참여도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드림스타트 참여가구의 49%와 미참여 가구의 44%에서 주양육자가 취업 중이고(<Table 3> 참고) 저소득 맞벌이가구에서 아동의 자기보호 위험이 높게 나타난

다는 점(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이 여러 가지의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한 서비스에서 다음 서비스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득과 실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드림스타트 참여아동은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높지만, 방과후 서비스 총 이용시간은 미참여 아동에 비해 적었다.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드림스타트 참여아동이 미참여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과 학원이 총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제시한 <Table 2>는 다른 방과후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교과 학원은 이용횟수로는 상위에 해당되지만 총 이용시간으로는 중간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횟수와 총 이용시간의 불일치는 교과 학원의 높은 이용률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드림스타트 미참여 아동은 주당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자기보호 가능성이나 시간은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70시간 이상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31-70시간 참여한 청소년에 비해 덜 긍정적인 발달수준을 보였다는 E. Sung et al.(2012)의 연구결과는 비록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에도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드림스타트 참여여부에 따른 총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방과후 서비스의 총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연계를 강조하는 드림스타트의 이용이 자기보호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가구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서비스의 종류, 총 이용횟수, 총 이용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된 영역을 탐색한 데에 있으므로, 활용가능한 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이용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 총 이용횟수, 총 이용시간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였지만,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의 결측치로 인해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특성이 그 서비스의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에 대해 유효한 응답을 한 집단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 응답률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과 같은 통계적 처치를 통해 결측 자료에 대해 좀 더 타당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 저소득 맞벌이가구 아동의 자기보호 위험성, 2) 자기보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과후 서비스 이용, 3) 방과후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강조하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연구의 동기에서 시작했으나, 실제적으로 아동의 자기보호 시간을 비롯하여 방과후 서비스 이용시 이동방법이나 소요 시간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미참여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적절한 해석을 내릴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방과후 서비스가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4Children. (2014).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census 2014: A national overview of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in 2014*. Retrieved from http://www.4children.org.uk/Files/6f907ff7-35fe-4c6f-a3a4-a3cb00e1a11c/Children_Centre_Census_2014.pdf
- Cho, Y. H. (2014). Analysis of an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41-162.
- Chun, Y., Lee, S., Kim, H., & Chang, E. (2012). *2011 Research report on effectiveness of Dream Star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Chung, I., Nam, K., & Chun, Y. (2009). *Model development of Dream Start based on locations*.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5).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Practice guidance*. Retrieved from <http://www.surestart.gov.uk/publications/index.cfm?document=1500>.

- Fass, S., Dinan, K. A., & Aratani, Y. (2009). *Child pover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New York: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 Ferguson, B., Tilleczek, K., Boydell, K., Rummens, A., & Roth E., D. (2005). *Early school leavers: Understanding the lived reality of student disengagement from secondary school*. Final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reports.htm>.
- Han, S. S., Kim, H. J., & Huh, J. K. (2007). A study on methods for improving the worker's professionalism in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4(1), 65-83.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4a). *2014 Manual for Community Child Center*.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14b). *2013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mmunity child center nationwide*.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ang, H., Park, S. K, Park, S. J., Lee, J., Lee, S., Chang, E., Kim, Y., Seok, J., Lee, B., Jung, S., & Hwang, D. (2012). *In-depth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Policy Report 2012-27.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K. H. (2006).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academic attainment: Focusing on duration, timing and extent of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1, 195-217.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Report on full-day care centers at elementary schools*. (Publication No. CP2013-02-1). Seoul, Korea: Kim, H. W.
- Kwon, E. S., & Ku, I. H. (2010).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129-148.
- Lee, H., & Shin, H. J. (2008). Regional Children's Center as a positive factor to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from the low income family in a small c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1), 167-193.
- Lee, Y. K. (2013). An analytical research of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on Caring Classroom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1), 177-204.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tch-key childre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Guide on service provision of Dream Star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9).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Publication No. 45 CFR Chapter VIII (10-1-09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trieved from <http://eclkc.ohs.acf.hhs.gov/hslc/standards/hsppps>
-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4).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4*. Retrieved from <http://eclkc.ohs.acf.hhs.gov/hslc/data/factsheets/2014-hs-program-factsheet.html>
- Park, H. S. (2008). Focused on comparing the effects of proxy variables and poverty-co-factors: Effects of poverty statu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6, 113-137.
- Park, T. J., Park, H. W., & Lee, H. Y. (2010). How does the Community Child Center work? : Content analysis to conceptualize director's experi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75-109.
- Phipps, S. (2007). Health outcomes for children in Canada, England,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179-221.
- Rho, S. H. (2013).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mother's in terms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 care: A focus on the working mothe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3), 21-40.
- Statistics Korea. (2014. 2. 27). *2013 Report on the spending for the out-of-school education*. Daejeon: Statistics Korea.
- Sung, E., Lee, H., Hwang, Y., Byun, S., Yoo, S., Lee, J., Jung, D., & Lee, S. (2012).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values and socio-economic values of youth activitie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Thompson, R. A.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self, conscience. In W. Damon, R. M.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24-98). New York: Wiley

- Received: January 30, 2015
- Revised: June 5, 2015
- Accepted: June 7, 2015